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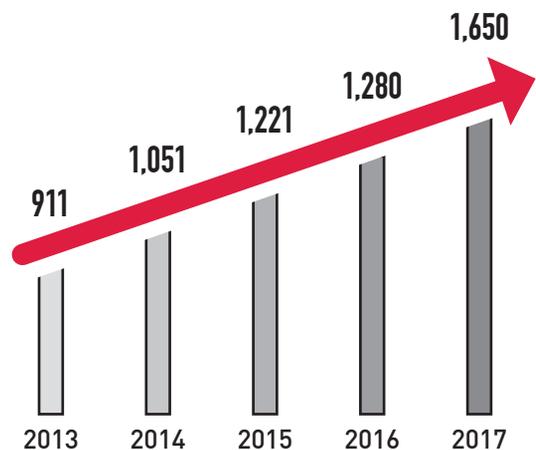
두 자녀 정책 힘입어 영유아 조제분유시장 호황

상하이지사

영유아 조제분유업계 전망 매우 밝아

- 세계 2위의 영유아용품 소비시장인 중국은 영유아 조제분유업의 시장규모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판매액은 2013년 911억 위안에서 2017년 1,650억 위안까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6%에 달하고 있다.
- 2016년 시장은 잠시 주춤하는 양상을 띄었는데, 이는 해당연도의 출생률 감소와 해외 직구량 증가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다.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은 중국 정부의 '두 자녀 정책(二胎政策)'이 실효를 거둔 덕분이다. 이러한 정책시행에 따라 중국은 현재 베이비붐이 조성되고 있으며, 영유아 조제분유업계의 시장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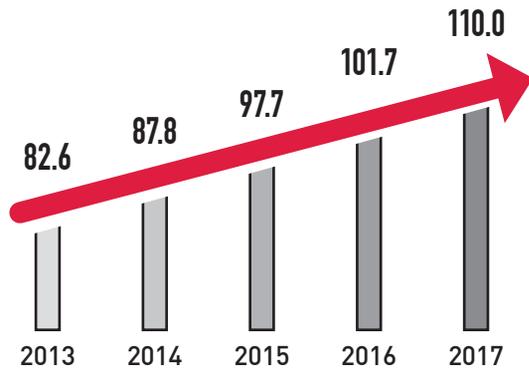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시장규모 (단위 : 억 위안)



2017년 영유아 조제분유 수요량 110만 톤 돌파

- 영유아 조제분유 수요량은 2013년 82.6만 톤에서 2017년 110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4%를 기록했다.

중국시장 영유아 조제분유 수요량 (단위 : 만 톤)



- 수요량의 증가에 비해 중국내 생산량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제분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다수의 중국산 영유아 조제분유에서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발견되면서 중국산 분유판매량과 생산량은 대폭 감소했다. 2013년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3.3%에 그치고 있다.

영유아 조제분유의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

- 저조한 생산량 증가에 반해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3.7% 증가해 29.59만 톤을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2.3% 증가해 39.8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아일랜드 및 독일이며 이들 주요 5개국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분유 매출확대 기회

- 두 자녀 정책 및 소비확대라는 호재를 만났지만 중국내 영유아 조제분유업계의 그들은 아직 거뒀지 않은 듯하다. 또한 영유아 조제분유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중국산 분유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때까지 중국 소비자들은 수입제품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 현재 중국시장에서는 유럽, 독일 등 서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오염된 네덜란드·뉴질랜드 영유아 조제분유가 시장에 유입됐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서구에서 생산된 분유에도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 중국이 아직 신뢰할 만한 영유아 조제분유 공급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한국 제품이 동양인에게 보다 적합한 제품임을 내세우며 홍보를 지속, 확대한다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